

[Page: H8870] GPO's PDF

랜토스 외교위원장. 의장님, 저는 규칙을 수정하여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지역을 전시 동안 식민통치하면서 황군(Imperial Armed Force)이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comfort women)”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 한 것에 대하여 명백하면서도 모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 하원 결의안(H.Res.121) 수정안에 동의하자고 건의합니다.

서기는 본 결의안의 제목을 읽는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하기 하기 위해 여성들을 공식 징집하였으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매춘으로써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낙태 강요, 모욕, 그리고 신체마비·사망·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바 20세기 인신매매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건중 하나이며,

일본내 일부 신규 교과서는 위안부 비극과 2차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의 관리들은 최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담은 93년 Kono 관방장관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고, 2000년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였으며,

하원은 일본이 인간안보, 인권, 민주주의 가치, 법의 지배를 증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를 지지하는 것을 평가하고,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이익(security interest)의 초석인 동시에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Page: H8871] GPO's PDF

냉전 후 전략적 환경(strategic landscape)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은 계속해서,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의 보전과 증진, 인권 및 민주주의 체제의 보호, 양국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보호와 번영 등, 양국간에 공유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요 가치에 기반할 것이며,

하원은 일본 관리 및 일본시민들이 열심과 열정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1995 년 민간 아시아 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평가하고,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국민들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atonement)를 위해 570 만불을 모금하였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대부분 정부 지원 기금으로 충당된 사적인 기금으로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사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동 기금의 시한은 07.3.31 일부로 종료되었으며 동 날짜를 기준으로 해체되었는바,

미하원은 일본정부가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함.

- (1) 1930 년대부터 2 차대전 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 (2) 일본총리가 공식자격으로 공개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과거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명의 성격 및 진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임.
- (3)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 (4) 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 · 미래세대를 교육시켜야 함.

Mr. Lantos 란토스 외교위원장

의장님 허용된 시간만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선 나의 훌륭한 친구이자 탁월한 동료인 캘리포니아주 혼다 의원이 이 중요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소위 ‘위안부’라 불리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해온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자국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직면하도록 강요될 때 결정됩니다. 과거의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나, 아니면 진실이 시간이 지나가면 묻혀버릴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으로 진실에서 도망갈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2 차대전 당시 자국군대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여성들에게 공식적이고 명백한 사죄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랑스런 세계 지도국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국가인데도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미일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신뢰와 우정은 상호적인 존중과 칭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일 양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 경제적 기회와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로 고통을 겪은 여성들에게 정부가 깨끗이 공식적으로 사죄하기 거부하는 것은 미일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과거 행위가 소수에 의한 행위든 다수에 의해 저질러졌든 간에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진실 전부를 밝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간의 화해에 긴요하고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잔인함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전후 독일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역사적인 기억상실증에 더욱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일본제국군이 2 차대전 때 대부분 한국 및 중국 여성들인 수십만의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화했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게임을 하는 것은 구역질나는 행위입니다. '위안부'라고 불리는 모든 여성들이 기꺼이 동조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강간'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6 월 14 일 일본 정부의 일원은 워싱턴포스트지에 충격적인 광고를 게재해서 하원외교위원회에서 용감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안부제도의 생존자들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반복해서 강간당한 이 여성들이 그 당시 흔했던 공창 행위를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가소롭고 화가 치미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일본제국군이 소위 '위안부'라 불리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진실을 인정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 그러한 공포스런 행위가 다시금 재발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대범한 행위로 간주되어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에 남성들에 의해 공포스럽고 잔인하게 흉악한 제도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피함과 편견, 더 큰 폭력과 위협으로 목살당하고 있었던 이 용감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이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이들 여성들의 편에 서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세계는 일본정부가 역사를 온전히 청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동료 의원들도 지지해주기를 촉구합니다.

Ms. ROS-LEHTINEN. 로스-레티넨 의원 (공화, 플로리다)

의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동안만 발언하겠습니다.

나는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중대한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존해있는 위안부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엄연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생존자중엔 이 결의안이 우리 외교위원회에서 상정되었을때 참석한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의도들은 후세대들을 향해 아주 몹쓸짓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의장님, 오늘 우리가 이야기 했던 수단의 다르프 사건은 무력으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압제하고 강간과 노동착취로 학대하는 일들이 불행히도 오늘날 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한번 일깨워 줍니다.

동시에 이 결의안은 일본이 지난 수십년동안 국제사회에서 든든한 후원자이며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치 노력에 있어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보도된바에 의하면 일본의 세 은행들이 이란과 연루된 모든 업무를 중단했고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이란인들이 요구하는 달러화 이외의 원유수입에 대한 현금지불 요구를 거절하고 차관 신청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age: H8872] GPO's PDF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일본인들과의 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평양 전쟁으로 기인했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고통을 무시할수 없음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 유럽의 동맹국들이 화해를 통해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것과 같이 아시아의 우리 동맹국들도 화해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관계로 이 지역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중요하게 부합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Mr. HONDA 혼다 의원 (민주, 캘리포니아)

의장님, 저는 오늘“위안부”라고 완곡하게 알려진 분들을 위해 저의 무조건 적이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를 그 분들에게 표명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랜토스 의장님과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부의장님 그리고 중진의원이신 로스레티넨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과 강력하고도 확실한 목소리로 오늘의 이날이 있게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원은 HR.121 법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지난 2차대전당시 일본 제국군대의 압제아래 고통을 감내한 분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순간을 맞아 저의 좋은 친구이자 멘토이며 곧은 성격의 소유자로서 위안부 할머

니들께 희망을 안겨주었던 저의 동료 레인 에반스 전 의원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 법안을 위해 달려왔던 저의 여정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로운 햇불을 밝힘으로써 제 개인에게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압니다. 지금 그분이 절 보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그의 용기와 정의실현을 위해 지칠줄 모르는 노력 그리고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위해 헌신한 에반스 전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생존자들을 위해 용감하고 열정있는 지지자가 되주셨습니다. 금년 2월 15일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저의 좋은 친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태평양 및 글로벌 환경분과위원회의 청문회에 다른 생존자이신 김 군자, 안 러프오헤른 할머니와 함께 참석 하셨습니다. 팔레오마바에가 의원과 탐 랜토스 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하신 할머니들의 증언은 위안부로서 감내한 공포와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고 저에게도 심오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은 저의 하루 하루의 삶에 영감을 줄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우리 하원은 일본정부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비인간적 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사과를 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전쟁과 분쟁에 희생되어온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들 여성들의 그러한 경험은 전세계 여성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전쟁이라는 명목아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강간과 성적학대 그리고 살인이 여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수단,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그리고 동티모르와 같은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만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는 우리들의 우방이자 동맹국인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도 명백한 사죄는 전세계 인권을 보호하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있어 꼭 필요하고도 옳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바로 서로의 화해임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한 중대한 원리를 계속적으로 실현하고 옹호하기 위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 하원이 발의한 HR 121 결의안을 통과 시킴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이 뜻깊은 일에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Mr. Tom Davis 데이비스 의원 (공화당, 버지니아)

의장님. 저는 오늘 HR 121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결의안을 하원 본 회의에 상정시키는데 수고한 위원회의 수장이신 혼다의원님과 랜토스 의장님, 로스-레티넨 의원님과 그 밖의 모든 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결의안은 오래도록 지체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동 발의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에 그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세계는 전쟁과 분쟁 상황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얼마나 흉악하게 대할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정부는 이 분들을 향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숨김없이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2차 대전당시 10만에서 20만에 달하는 여성들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필리핀 등 일본이 침략한 땅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서 강제로 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부정하고 숨기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을 부정하고 희석 시킬때가 아닌 역사로 부터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때 만이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과거 2차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로 집단수용소에 가둬 놓았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희생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태평양 넘어 친구들에게 그들의 많은 잘못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할 용의가 있는 사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랜동안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었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 서로가 참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잘못했을때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해 줄수 있는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미국은 일본의 우방으로서 이 극악한 과거행위에 대해 일본이 전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안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용기있는 위안부 생존자들이 미국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왜 이 지구상

에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더이상 침묵하기를 원치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우리 모두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r. FALEOMAVAEGA. (민주당 태평양 및 글로벌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의장님, 하원 외교 위원회의 뛰어난 회장님, 즉 제 친우이자 의장이신 탐 랜토스씨, 또 저희 수석 의원이신 로스-레티넨 씨께 H 결의안 121을 오늘 이 회의에 가져올 수 있기까지 쏟으신 그분들의 지도력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동료들, 특히 본 결의안의 주요 지지자이며 본 결의안의 조항들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 약 146명의 공동발의를 얻은 캘리포니아 대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본 결의안은 전에 외교위원회에서 전 의장이시고 일리노이주 대표 의원이신 하이드 씨의 지도력 하에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 일리노이즈 의원이시자 제 친우이신 레인 에반스 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반스 씨 역시 본 결의안의 지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의장님, H. 121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말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 식민화 및 전시 점령 당시 십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 불린 성노예로 유린했던 제국주의 군대의 강압적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져야 한다는 미 하원의원들의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금년 2월 7일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및 지구 환경 분과위원회에서는 H 결의안 121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는 미 의회 역사상 최초로 세 명의 “위안부” 생존자께서 증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Page: H8873] GPO's PDF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셨고, 저는 특히 이용수 씨와 김군자씨, 그리고 잰 러프 오헌 씨가 가지셨던 용기,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고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부분적으로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신념에 대해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애절한 증언을 전 세계가 읽기를 바라며, 이 증언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이 고귀한 여성들의 노력에 미국이 함께하는 이 순간까지 오게 해 주었습니다.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제국군이 조직하고 관리하고 시행한 것으로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요 인권 위반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십대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조직적으로 구타당하고 고문, 약 투여, 신체 절단, 그리고 심지어는 살해당함으로써 전례없이 잔인하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UN 인권 위원회에 의하면 일본 제국 군대 병사들은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약 20만 명의 십대 소녀들과 어린 여성들, 그밖의 여성들을 납치하여 성적 노예로 삼고 학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과거에 이미 사과를 했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은 위안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에 가서야 일본의 관방장관 야헤이 고노가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 외교부는 이 연구를 실시한 뒤 시인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외교부가 실시한 2년 연구에 관하여 고노 관방장관이 한 성명 전체를 첨부하겠습니다. 1993년,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정부 대변인의 감독 하에 2년에 걸쳐 이루어진 외교부의 연구 결과 야헤이 고노씨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전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연구를 실시해 왔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바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운영되었으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위안소는 당대의 군사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당시의 일본 군부는 직 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연루되었었다. 위안부 모집은 주로 군 당국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민간 모집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졌고, 정부 연구에 따르면 여러 경우 위안부들이 감언이설과 강압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모집되었으며 때로는 행정 및 군사 간부가 직접 모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 비참한 상태에서 위안소에서 거주하였다. 전쟁 지역으로 이송된 이 위안부들의 출신 지역은 일본에서 온 이들을 제외하고는 그 다수가 한반도에서 온 이들이었다. 한반도는 당시에 일본 지배하에 있었으며 위안부들의 모집과 이송, 통제는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감언이설과 강압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대의 군사 당국의 개입과 함께 이것이 많은 여인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극도로 손상하는 일임은 부인의 여지가 없다.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출신지에 상관 없이 위안부로서 측량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 일본 정부는 학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감정을 최선의 방법으로 표명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위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연구와 역사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러한 문제들을 영원히 각인함으로써 동일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결심을 이에 되풀이하는 바이다. 일본에서 소송 사건들이 법정에 제기되어 왔고 일본 국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모아진 바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철저한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며 이와 연관된 민간 부문에서의 연구에도 그러할 것이다.

고노 성명서는 일본 수상이나 내각 의원들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비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일본의 공식 사과문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방장관은 공보 비서관이나 대변인 정도로 여겨졌고 결코 내각의 공식 의원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수상 대행으로

행동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2001년, 고이즈미 수상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수상이 아닌 내각이 승인한 성명서만이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결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각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떠한 회오의 선언도 개인적 견해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의 말로써 제 진술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룩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저는 일본 정부 내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지도자들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동료 의원들도 이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Begin Insert]

의장님, 저는 외교위원장 톰 란토스 위원과 고위위원인 로스-리히텐 의원에 오늘 H.Res.121을 상정하기 까지 보여주신 리더십과 노력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의 동료인 캘리포니아 혼다 의원께 미국 하원 146명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 본 결의안에 대해 보여주신 지지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본 결의안이 이미 과거 국제관계위원장이셨던 일리노이 주의 헨리 하이드 위원의 뛰어난 리더십 하에 이전 의회의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주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년간 본 결의안을 위해 힘써주셨던 우리의 과거 동료이자 친구인 일리노이의 레인 에반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의장님, H. Res. 121은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아시아 및 태평양 섬 지역을 전시 동안 식민통치하면서 완곡하게 “위안부(comfort women)” 체계라고 알려진 대로 황군(Imperial Armed Force)이 십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한 것 대하여 명백하면서도 모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하원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2007년 2월 15일 환경외교위원회 아태 환경소위원회에서 H.Res.121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미 의회사상 처음으로 3명의 위안부 생존자들이 공식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영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용수, 김군자, 안 러프 오해른 할머니께 보여주신 용기와 신념,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얘기를 들을 것이며 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바로 잡힐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대해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세계에 오늘 미국이 이 숭고한 여성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자리를 이끌어낸 이들의 감동적인 증언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일본 황군이 조직, 관리, 집행한 “위안부” 체계는 20세기의 최대규모의 인신매매사건이고 인권유린사건입니다. 십대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강간, 구타, 고문, 약물남용,

신체 훼손과 심지어 일부 살해 당하는 등 그 잔혹성과 강도에 있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황군은 약 200,000명에 달하는 십대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납치하여 성적 노예와 학대에 처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정부는 이 만행에 대해 사죄했으며 책임을 수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80년과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일본의 주요 언론이 “위안부” 문제의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이 점령했던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에 대해 1992년 일본의 요헤이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노 담화문”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문으로 자주 인용되지만, 이 담화문을 일본의 어떤 총리나 내각 장관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은 일부 공보비서관, 일부 비서실장으로 간주 되었으며 결코 내각의 공식 구성원은 아니었으며, 자신을 결코 총리 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아닌 내각이 승인한 담화문이 일본의 정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내각의 승인 없이는 속죄에 대한 모든 선언은 단지 개인의 견해로만 비취질 뿐입니다.

Mr. PEARCE. 피어스 의원 (공화, 뉴멕시코)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플로리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란토스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오늘 저희는 정확히 왜 저희가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일이 오래된 상황이다, 너무도 오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오래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여러번 뉴 멕시코에 있는 그 지역, 뉴 멕시코의 제2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이 또래의 베트남 시절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1970년대에 저는 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대접하는 방식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며, 단지 격려 한마디에, 고향에 잘 돌아왔다는 한 마디에 과거 오래전의 남자와 여자들의 뺨에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저희에게는 옳지 않은 상황,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끼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란토스씨만큼 좋은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들림이 없는 조용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이여사님을 보니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용기있는 한 사람의 단순한 발자국은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한 마디 말은 전세계를 능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실한 한 사람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우방인 일본에게 조용히 설득하도록 요청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들이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로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제 인정할 때가 되었네, 사과할 때가 됐어.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되었네”

라구요. 왜냐하면 치유는 피해를 받은 자들 편에서만, 잘못을 당한 쪽에서만 일어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우리가 정당성을 초월하지 않는 존재이며, 정의를 뛰어넘지 못하며 정의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하게 해주는 어떤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기한 시점에 오래 신뢰하는 친구에게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는데, 사과할 때가 됐어, 우리가 해왔던 일을 자각하고 바뀌어야 할 때가 됐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리 심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가장 고귀한 객관성을 갖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너무 때늦은 행위에 대한 인정과 치유인 것입니다.

Ms. JACKSON-LEE 의원 (텍사스, 외교위원회)

의장님과 위원회의 간부의원들께 많은 사람들이 잊으려고 했던 잔학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법의 추진력이자 아시아 분과위원회 의장이신 혼다씨에게 그분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라인 에반스의원께서 국회를 떠나시기 전 이 법안을 작성하실 때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결단성에 대해 저희 모두가 언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수 피해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그 분께서는 직접 말할 수 없는 모든 여성들의 굳건한 힘으로 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저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인정, 사과,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받아 들이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 노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은 것은 만일 우리가 외교 문제 위원회에서 성 노예, 여성의 감금, 여성 비하에 관해 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질 지도 모르는 그러한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의회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타락의 정도에 있어 이것은 덜 하지 않으며, 그것의 역사적 관점이 이 위안부 여성들, 성 노예였던 여성들에게 우리가 사과하거나, 일본에게 사과하고 그 나라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나 저희 국회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일본의 교과서가, 그것들 중 많은 수가 일본의 행위와 위안부를 억압했던 행동들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군인들에게 소위 위안을 주고자 성 행위에 관계되었던 여성들입니다. 미국에서의 노예제에 대한 사과에 관해 다수의 논쟁을 거쳐 저는 사과는 중요하다고 간단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결단코 자신들이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받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띄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H. Res. 121을 지지하기 위해 일어서며 그것을 역사적 맥락안에, 단연코 오늘날의 맥락 안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안들중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면 그것을 비난하여 일어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의 고난은 사과와 책임이 더 이상 살아 계시지 않은 분들과 살아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통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저희 나라와 일본의 각성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제 동료들에게 H. Res. 121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미있는 일은, 2월에 개최된 청문회 결과로 관심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이 미 의회가 일본의 입법체제와 위안부라는 비극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기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지 압니다. 또한 우리는 “위안부” 논란의 진실성을 부정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일본 언론이 뽑아내는 선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베총리는 성노예캠프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아태지역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언급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아베총리는 1993년 고노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을 전쟁의 무기로써 체계적으로 납치, 강간, 학대하는 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는 일이며, 저는 일본국민들도 이점에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H.Res.121이 일본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개한 유일한 여론조사는 2001년 후지 티비의 호도가 응답자들에게 일본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경우였습니다. 43.8%가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37.2%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자는 과거는 과거이며 미국도 인권을 위반하고 유린한 사례가 있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역사 어떤 면을 보더라도 미국 군은 정책적으로 십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을 성노예나 강압적인 매춘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지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군 최고 사령부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으며 어떠한 정부라도 과거 역사를 경시하는 것은 사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문명사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역사의 수정이나 부정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위안부 문제, 또는 다른 어떤 이슈가 양자 관계나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문명사회는 고통 받은 자를 기억하고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며, 과거와 현재의 피해자들에게 찬사를 바치며 인권을 보호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동료들이 보내준 지지에 감사 드리며 일본 수상과 내각이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액수의 금액도, 일본 민간단체나 아시아 여성기금이 조성한 자금이라 할 지라도, 세계 제2차 대전을 전후로 일본 황군에 의해 희생당한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한 여성들이 이러한 기금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저는 일본 정부가 금전 지급으로 도덕적인 잘못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아시아 여성기금이 사죄의 행동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토론은 사안의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황군이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성을 점령하면서

십대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한 것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수요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동료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누군가가 언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업적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저는 동료들이 본 결의안을 지지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End Insert]

로스-레티넨 의원. 의장님, 저는 뉴 멕시코의 피어스 의원님이 필요하신 시간만큼 양보하겠습니다.

피어스 의원. 시간을 양보해 주신 플로리다의 로스-레티넨 의원님과 란토스 의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의장님,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 문제가 과거의 상황이었으며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뉴 멕시코 지구나, 뉴 멕시코 제2지구를 방문하면 베트남전을 겪은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저는 1970년대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자신들을 처우하는 방식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단지 한마디 격려의 말, 고향에 돌아온걸 환영한다는 말 한마디가 오래 전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상황,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끼칠 책임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란토스 의원만큼 잘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란토스 의원이야말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란토스 의원은 침착하고 조용한 이성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용기 있는 자의 발걸음은 거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진실한 한마디의 말은 전세계 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솔제니친은 또한 진실을 담은 한 사람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우방인 일본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본은 좋은 우방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로서 우리는 조용히, 친구여, 이제는 인정할 때이네, 이제는 사죄할 때이네, 이제는 말할 때이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는 받는 측에서만, 잘못이 저질러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는 그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면 우리 모두가 정의에 우선하지 않으며, 우리가 올바르게 우선하지 않으며, 우리가 정의나 진실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겸허함을 갖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친구에게 이제는 인정하고, 사죄하고, 과거를 수용하고 변화할 때라고 말해야 하는 이러한 묘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해도, 이는 결코 아주 심한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객관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오래 전에 진행되었어야 할 인정과 치유입니다.

란토스 의원. 의장님, 저는 2분만 양보해서 외교위원회 의원이신 캘리포니아 울시 의원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시 의원. 의장님, 저는 하원 결의안 121를 지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본건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전 특히 올해까지 저희와 함께하셨던 레인 에번스 의원께 감사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처음 이 법안을 도입하실 때 의원님이 옳았으며 의원님의 논리와 이 법안이 오늘날 정확하고 올바른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안부 착취가 과거사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용감한 여성을 만나본 누구라도 이들이 현재의 모든 순간을 끔찍한 기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인 착취, 흑자는 노예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주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위안부들이 겪은 폭력은 비인간적인 것이었으며 지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이 슬픈 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책임을 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날입니다. 오늘까지 살아 남아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할 것이며 그들의 용기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리며 우리는 오늘 전세계를 대변해 이렇게 말할 것 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성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용기나 존엄성에는 만료시효가 없습니다. 바로 이점을 우리가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안부 여성들의 인내를 기립니다. 우리는 전세계 정부가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한 미래를 향해 가기를 촉구합니다.

로스-레티넨 의원. 의장님, 저는 이제 더 시간요청 드릴 건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다 양보합니다.

란토스 의원. 의장님, 3분만 시간을 주시어 외교위원회 위원인 텍사스 잭슨 리 의원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잭슨 리 의원은 발언은 수정해서 발표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해 승인을 얻었다.)

잭슨 리 의원(텍사스).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고위 간부께도 많은 이들이 잊어버리고자 했던 과거의 만행을 기억하기 위한 본 포럼을 만들어 주신데 감사합니다.

본 발의의 핵심 인물이자 아시아 소위원회의장이신 혼다 의원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의회를 떠나시기 전 본 법안을 만드시면서 보여주셨던 정신과 열의, 결단력에 관해 레인 에번스 전의원님을 언급했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또한 이 할머니께도 한 말씀 드리면, 자신을 대변해서 말하지 못하는 모든 여성에게 굳건한

뜻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의장님, 저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으면 합니다. 저는 인정, 사죄, 역사적 책임의 수용이 의미하는 바를 사람들이 가볍게 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는 성노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께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성노예, 여성의 감금, 여성의 인격모독에 대해 외교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하원으로 달려가 발언권을 요청하며 우리 주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는 마찬가지로 인격모독적이며, 역사적 견해가 일본과 본 의회가 성노예였던 위안부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일본에게 사과하고 국가 전체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지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Page: H8875] GPO's PDF

여러분은 일본의 교과서에서 일본의 행동이나 위안부를 감금했던 행위 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 여성들은 군에 위안을 주기 위해 성적인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제도에 관한 사과에 대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친 이후 저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사과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H.Res.121을 지지하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현재라는 의미에서 본 결의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등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되어 비난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의 고난은 마찬가지로 미국, 그리고 물론 일본의 인정이 필요한 문제이며 사죄와 책임은 오늘날 생존하지 못하신 분들 뿐 아니라 현재까지 생존하해 계신 분들이 깊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습니다.

동료들께 H.Res.121 지지를 호소합니다.

스미스 의원 (뉴저지). 의장님, 저는 오늘 일본정부에 1930년대부터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동안 아시아 및 태평양 성 지역을 전지 동안 식민통치하면서 황군이 완곡하게 “위안부”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 한 것에 대하여 명백하면서도 모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H.Res.121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저는 특히 혼다 의원님이 “위안부” 문제에 보여주신 리더십과 착취당한 이 여성분들께 보여주신 연대감에 대해 감사 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본 결의안에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간 우정과 동맹은 아태지역에 안정과 번영을 구축하고 이 지역의 안보이해관계에 핵심적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역사에 길이 남을 사실을 인정하고 20세기 최대의 인건매매 사건에서 벌어진 과거의 끔찍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이 관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일본 제국주의 잔인성의 희생자들이 전세계에 자신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07년 2월 15일 일본군의 손에서 명백한 고통과 어려움, 성노예로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지니신 세 명의 여성들이 파니오마베가 의원이 의장으로 계신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낸 수년간의 세월에 대해 가슴 아픈 현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 남긴 정신적 육체적 상처 때문에 오늘까지 고통 받고 계십니다.

올해 4월 26일 저의 좋은 벗이자 전 외교위원장이신 헨리 하이드 의원과 저는 이 여성들에게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일본인들이 용감하게 인정하고 회복하며” 과거 역사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워싱턴 타임즈의 기고문을 공동 작성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 망설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게 일본 황군이 젊은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한 점을 명백하면서도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매우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잭슨 리 의원(텍사스). 의장님, 저는 일본정부가 세계 제2차 대전 중 아태지역의 가장 어두운 기억의 하나인 일본군이 젊은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한 관행인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공식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H.Res.121를 지지합니다.

우선 저는 뛰어난 동료이신 캘리포니아의 혼다 의원님께 이 중요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데, 그리고 이러한 인도에 대한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일본은 충실한 우방이자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아직 불안정한 이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라 불리는 전시에 황군이 자행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정부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건의 인도주의적 사태에 대해 취했던 용감한 인도주의적 입장 및

이 지역의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는 큰 대조를 보입니다.

자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직면하는 것은 국가가 성숙국면에 들었음을 진정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일정부는 전쟁기간 및 강압 기간 동안 제3제국이 자행했던 전쟁범죄를 책임지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군이 수천 수만의 여성들, 특히 중국 및 한국계 여성들에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본 내 일부 인사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러한 범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희생자들이 매춘을 저질렀다고 비난합니다.

일본정부에게 과거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강간이 전세계에서 아직도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본 하원의 임무입니다. 본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라는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원은 강간을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는 이 끔찍한 범죄의 수 많은 희생자들에게 마침내 목소리를 주겠지만, 의회의 의도는 우리의 우방인 일본에게 본 결의안이 특정 과거사를 직면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제공하려는 것이지 파트너이자 우방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의장님, 저는 동료 의원들께 저와 함께 이 중요한 결의안을 지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로이스 의원. 의장님, 저는 H.Res.121, 또는 위안부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본 결의안은 109회 의회에서 처음 도입될 때부터 계속 지지해왔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일본 황군은 200,000명에 달하는 젊은 한국 여성들의 노예화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고향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매음굴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취직시켜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인신매매 사건 중 최악의 사건에 대해 이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으로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너무 수치스럽거나 두려워서 밝히지 못했던 과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일본은 본 이슈는 종결되었으며 전쟁 때 개인들이 겪었던 고통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국교를 정상화 하면서 맺은 조약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일부는 아베 총리의 4월 27일 담화를 가리켜 공식적인 사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리 자신이나 일본의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을 부인합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역사의 이 어두운 면을 직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결의안은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그만큼 현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살인에 반대할 수 있는 세계의 힘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면 약해집니다. 역사는 지속적인 것이며 오늘과 내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제가 잘못였다면 올바른 내일로 가기는 어려워집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중요한 결의안을 지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렛 의원(뉴저지). 의장님, 저는 오늘 하원이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한국 위안부 여성들의 고초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H.Res.121을 고려하게 된 데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본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을 자랑스런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1930년대 군은 젊은 여성들이 매음굴에서 일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때로 납치된 여성들은 성노예가 되기 위해 해외로 보내어 지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여성들은 상처를 안고 많은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남겨졌습니다.

슬프게도 여전히 일본에선 군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 여성들이 선택해서 매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증거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범죄에서 군이 담당할 역할을 인정해야 할 시점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이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여전히 살아가는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사죄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과 일본간 관계는 한 일 양국이 번성하는 민주사회로 발전하면서 개선되었지만,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본 결의안이 화해를 촉진하여 양국이 미래의 협력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8월 31일

E:WCRWFMWK30JY7.089 H30JYPT2

[Page: H8876] GPO's PDF

랜토스 의원. 의장님, 더 이상 추가 시간요청은 없고 남은 시간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의장 (히노요사 의원) 본 건은 캘리포니아 랜토스 의원의 동의로 하원은 규칙을 보류하고 수정된 대로 H.Res.121의 결의에 동의합니다.

본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가 찬성) 규칙이 보류되고 수정된 결의안이 동의되었습니다.

명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1930년부터 2차 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기간 동안 황군이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명백하면서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미 하원의 결의문.”

재심 요청이 무기 연기되었습니다.